

30/07/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음 산티
확장 전체를 점 하나에 합쳐 넣어라.

1982/04/30

밥다다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몸과 이 세계에서 멀리 데려가기 위해 이 육신과 이 세계에 들어온다. 머나먼 나라의 주민은 모든 이를 머나먼 나라의 주민으로 만들려고 온다. 그 몸들은 머나먼 나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영혼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나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 꾸려야 할 짐이 남아 있느냐? 어떤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너희는 벌여 놓았던 일체의 확장을 모두 짐으로 싸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너희들의 스위트홈인, 머나먼 나라로 가는 데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느냐? 모든 확장은 하나의 점에 합쳐져야 한다. 너희는 수용하는 힘과 짐 꾸리는 힘을 이정도로 훈습했느냐? 때에 따라서 만일 1초에 함께 가자는 밥다다의 지시를 받는다면 너희는 바로 그 1초에 확장을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와 함께 가기 위해 너희들의 몸에 달린 여러 가족 모두와, 너희 세속의 가정, 봉사의 가정, 아직까지 남아있는 너희들 자신의 생각과 산스카르에 달린 갖가지 가족들 모두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면서 또한 사랑도 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일부 가족들이 너희를 끌어당기겠느냐? 너희는 모든 측면의 온갖 다양한 종류의 가족들에게서 이미 벗어나 멀어졌느냐, 아니면 그런 측면들 중 일부가 너희의 일시적인 지원이되어 아버지의 지원과 동반에서 너희를 멀어지게 하겠느냐?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너희가 지금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을 때, 너희 자신을 더블 라이트한 비행의 좌석에 안정시킴으로써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준비를 이미 해두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것과 저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느냐? 너희는 짐 꾸리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봉사,” “나의 센터”, “내 학생들”, “세속의 내 가족”, “세속에서의 내 일” 같은 확장을 기억하겠느냐?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테지? 너희는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온갖 생각들로 구성된 한 편의 연극을 내놓는다. 그 연극에서와 똑같이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좌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겠지? 지금 현재 너희는 확장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확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냐? 나무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그것이 씨앗 하나 안에 합쳐진다. 그처럼 지금 봉사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더 자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는 정도만큼 성장에 초연해지고 함께 돌아갈 그 한 분을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어떤 측면에서도 애착의 끈이 전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모든 측면에서 끈들을 항상 느슨하게 가져야 한다, 즉 미리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해라. 예컨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여기서의 마지막 예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치르도록 미리 장례 절차를 마련해둔다. 그러면 그들은 작별을 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가족들의 굴레에 대해 미리 작별을 고해라! 마지막 예식을 미리 축하해라. 날아다니는 단계의 비행 좌석을 항시 준비된 상태로 두어라.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든 전쟁이 시작되면 왕이나 대통령이 언제든 그 나라를 떠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 그 상황에 닥쳐서는 뭔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릴 시간 여유조차 없다. 전쟁의 징후를 감지하자마자 그들은 달려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은 상습범이 되어 감옥을 드나들 것이다. 봉사의 도구이며 일시적인 권리를 가진 영혼들도 역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둔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이 합류시대에 주인공 배우, 즉 특별한 영혼들이다. 너희들도 역시 모든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지 않으냐? 아니면 그때가 닥쳤을 때 준비하려느냐? 여유는 단 1초뿐일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뭘 하겠느냐?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행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묘한 몸이라는 탈것의 단계를 준비했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카르마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즉 카르마티트의 단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1초에 날아갈 수 있는 최종의 탈것이 준비되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헤아려보고 있느냐?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야 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준비를 모두 다 해두어라. 봉사를 위한 편의시설들을 채택해도 된다. 심지어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도 된다. 그러나 그런 측면들에 끈을 끊어놓고는 그것들을 내버려두지는 마라. 그 모든 가족들과 연관을 가지되 연꽃이 되기를 잊지 마라! 집에 돌아갈 너희 각자의 준비를 잊지 마라! 봉사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마지막 단계의 탈것을, 즉 사랑하면서도 초연한 고결한 수단을 잊지 마라. 봉사를 많이 해라, 그러나 초연해지는 특기를 놓치지는 마라. 지금 이때가 바로 이 연습을 해야 할 때다. 너희는 완전히 초연해지지도, 완전히 사랑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과 초연한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해라. 봉사하되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서 분리된 상태로 봉사해라.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이해하느냐? 지금 낡은 끈들이 끊어지고 있는 와중에 너희는 새로운 끈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더라도, 그 새로운 끈들은 광채를 발하고 있는 끈이므로 너희는 지금 새로운 끈들을 끊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올해 뭘 해야 하느냐? 밥다다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자녀들이 하는 게임을 본다. 너희는 끈들의 굴레라는 경주에서 서로를 앞질러 가고 있다. 그러므로 확장하는 와중에도 본질적인 핵심의 형태를 유지해라.

지금 현재 봉사의 결과는 양적으로 아주 좋지만, 이제는 양만큼 질적으로도 완전하게 해라. 수립의 과제에서 양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무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좋겠느냐? 과일과 꽃들이 있어야겠느냐, 그저 잎들만 있어야겠느냐? 잎은 나무의 장식이고,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 각자를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결실의 형태로 만들고 그들을 미덕들과 힘들에 대한 경험의 화신으로 만드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성장은 좋지만 그들에게 즉시 장애를 파괴하는 강력한 영혼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성공의 화신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랑하면서 협조하게 될 테지만, 그들이 장애들과 낡은 산스카르를 직면할 수 있는 강력한 영혼이 되고 마하비르들이 되도록 너희는 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자 이제는 자아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세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의 자질을 지닌 영혼들의 수를 늘려라. 봉사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만 이젠 모든 힘과 특질들로 가득한 영혼들을 세계무대 위에 데려와라.

올해는 특별히 경험의 화신, 경험의 광산이 되어서 모든 영혼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앙가드처럼 되도록 그들을 경험의 화신으로 만드는 위대한 기부를 해라. 그들이 단지 앞으로 전진하고 단지 행동하고 듣고 나누는 일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보물을 얻었다는 노래를 부르며 행복의 그네를 타게 해라.

올해는 봉사에 대한 열의와 더불어 날아다니는 단계에 대한 열의도 역시 늘어나게 해라. 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질 뿐 아니라 너희의 열의가 얹누를 수 없이 지속되도록 그런 축제를 축하해라. 이해하느냐? 날아다니는 단계에 대한 열의를 끊임없이 지니고 모든 이의 열의도 증폭시켜라.

올해 너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영혼들에게 봉사해서 그들 각자를 아버지에게 속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간직해야 하고, 갖가지 직업을 가진 다양한 영혼들로 구성된 꽃다발을 아버지 앞에 가져와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적인 장미들이어야 한다. 나무는 다양성의 나무여서 그 안에는 VIP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속하는 영혼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과 시골마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험들의 광산으로, 모든 이를 경험과 성취의 화신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데려와라. 그런 이들은 영적인 장미라고 불린다. 꽃다발을 만들되 “내 꽃다발이 모든 꽃다발 중에서 최고야”라는 식의 “나의 것”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게 해라. 그럴 경우 그들은 영적인 장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는 꽃다발이 시든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바의 자녀라고 여겨라. 그들이 너희에게

속한다는 것을 잊어라. 그들을 너희에게 속하게 만든다면 너희는 그들의 무한의 권리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영혼이라도 전지하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일컬어질 수는 없다. 그들은 대양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영혼에게서도 무한한 그들의 유산을 박탈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영혼들은, 자기들을 그들에게 속하게 만든 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서 유산을 박탈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때에는 슬퍼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너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슬픈 울부짖음은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는 특별한 봉사를 해도 좋다. 너희가 가진 힘은 뭐든지 써라, 즉 신체의 힘, 마음의 힘, 부의 힘, 협조의 힘, 심지어 시간의 힘까지도 강력한 과업을 위해서 써라.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사용하는 만큼 쌓는다.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너희의 모든 힘을 다 써라!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날고, 남들도 역시 날아다니는 단계로 데려가라. 열의를 위한 구호는 너희들이 이미 받지 않았느냐?

올해는 2종의 축제를 축하하고, 너희 모두 특별한 영적인 장미들로 만든 꽃다발도 역시 준비해라. 오늘 여기에 온 자들도 역시 다양성의 꽃다발이다. 어디서든 영혼들이 왔다. 지금 이것은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온 다양성의 꽃다발이 아니냐? 2종의 외국인들도 역시 마지막 한 번 몸을 물 속에 담을 뜻을 차지했다. 밥다다는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 모두 축하를 받았으니 너희들 모두 서로 만난 것이 아니냐? 너희들 모두 서로 만났느냐? 축하는 이미 받았으니 다른 무엇이 남았느냐? 톨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줄을 서서 각자 톤리를 받는다! 그런 때도 역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참으로 커다란 강당을 짓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은 체제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이번에 바라는 특별히 바라트에서 온 자녀들이 불평하는 데 대해 만족시켜주었다. 매 시즌마다 고유한 관습과 제도가 있다. 내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저 기다려봐라. 바바가 지금 너희에게 그 얘기를 해준다면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 꽃다발을 가져오겠지? 질을 토대로 너희에게 등수도 역시 매겨줄 테니 양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좋게 해서 가져와라. 심지어 정치가들마저 대중들의 집회에서는 아주 영리하다. 양도 있게 하되 질도 좋아야 한다. 그런 꽃다발을 가져와라. 그저 잎사귀뿐인 꽃다발은 가져오지 마라. 앗차.

마지막 탈것을 가지고 항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모든 영혼을 경험의 화신으로 만드는 면에서 위대한 기부자인 자들에게, 축복의 공여자 행운의 공여자인 무한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무한한 유산을 남들에게 주는 변함없는 도구인 영혼들에게, 영혼들을 봉사자로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성공과 확장을 달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봉사와 같은 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대해 초연한 상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갈 자들에게, 그렇게 가깝고 대등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봉사자들을 만나심 :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서 그들이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봉사자들이 있고, 야기야를 위한 봉사자도 있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 모두 야기야를 위한 봉사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야기야를 위한 봉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야기야의 곡식 낱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각각의 낱알이 금전만큼 귀중하다. 만일 누군가 낱알 한 알만큼 봉사한다면 그는 금전처럼 값진 소득을 벌어서 쌓아둔다. 이처럼 너희는 봉사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쌓은 것이다. 첫째로 여기에 와 있는 너희 봉사자들은 축복의 땅 마두반에 머물 기회를 받았고, 두 번째로 너희는 변함없이 고귀한 분위기 속에 머무는 행운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소득을 쌓는 행운을 받았다. 봉사자인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여러 유형의 행운을 받는다! 너희 영혼들은 너희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행운의 봉사자라

여기며 봉사하느냐? 너희는 의식 속에서 그런 영적인 도취감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봉사하는 동안 이것을 잊느냐? 높은 행운을 가진 봉사자들은 남들에게 열의를 줄 도구가 될 수 있다. 봉사자들은 모두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며, 마음도 장애로부터 자유롭다. 어떤 유형의 장애도, 격동도 없을 때 그것을 봉사에서 성공의 화신이 되는 것이라 한다. 산스카르들과 상황의 격동이 아무리 심해도 아버지와 끊임없이 함께 있으면서 한결같이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변함없이 장애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머문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영혼들을 보거나 다른 영혼들을 따른다면 동요가 생길 것이다. 봉사자들이 봉사에서 성공하는 토대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너희들 모두 다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했느냐? 봉사하는 동안 너희들 각자의 기억의 차트가 어땠느냐? 앗차, 너희는 행운을 높게 만들었다. 결과는 좋다. 야기야에 봉사할 기회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복이 아주 많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념비가 만들어질 정도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오직 너희들만 불릴 정도로 과제를 행해라. 지치지 않고 봉사하는 자들은 지금 현재와 또 미래를 위해서도 결실을 쌓는다. 너희들 모두 각자의 배역을 아주 잘 연기했다.

Blessing: 끌어당기는 형상이 되어서, 한결같은 승리를 의식하며 항시 행복하게 머물고 남들에게도 행복을 주어라.

“나는 매 사이클마다 성공하는 영혼이다.” 승리하는 영혼의 얼굴은 언제나 명랑하므로 승리의 틸락이 너희 이마에서 변함없이 빛나게 해라, 이 승리의 틸락은 남들에게 행복도 역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얼굴을 보는 이는 누구든 그 행복에 이끌린다. 마지막에,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시간여유가 없을 때, 남들을 끌어당기는 너희들의 형상과 너희의 명랑한 얼굴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Slogan: 어디에나 아비약트 단계의 빛을 퍼뜨리는 것이 등대가 되는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